

- 환영 :**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교우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예배 :** 다음주일은 (8/24) 목회자 여름휴가로 영상설교로 예배 드립니다.
- 기도제목 :**
 - 1) 세월호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해
 - 2)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 3) 삶으로 예배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 4) 여름방학 여행과 출장중인 교우들을 위해
 - 5)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해



2014 교회표어 :
삶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 지난 주일 통계 ■

십일조 : 무명1
 감사헌금 : 서인원정지윤 서민정 박찬최진영 무명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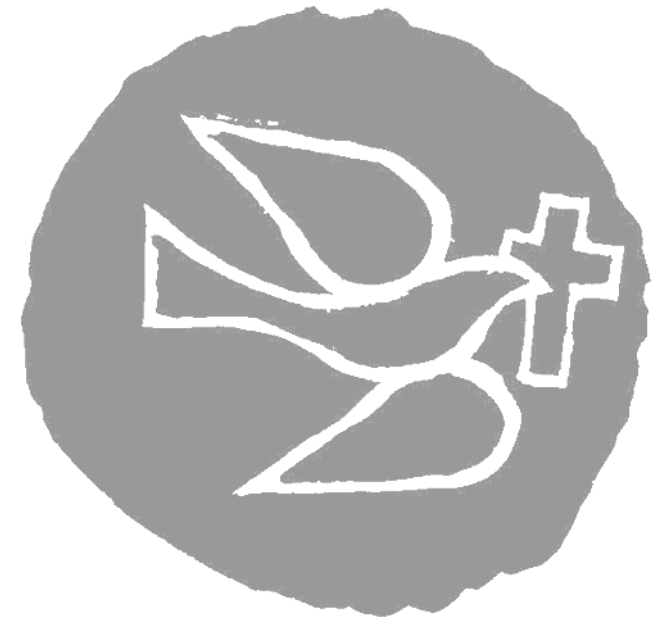
지난주 출석 : 성인 26 청소년 2 주일학교 7 유아 5

■ 유로룩스가 함께 하는 협력선교 ■

지역선교	Luxembourg 교회연합
민족선교	Opendoor 동아시아 사업부
아프리카 선교	북아프리카 E국 양승천 선교사
동유럽선교	헝가리 부다페스트 신성학 선교사
서유럽선교	미자립 한인교회 (독일 괴팅엔 새봄교회)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서인원 교회학교 : 박영신/이귀영
 성가대 : 홍미향 반주 : 강주현/서혜승/김정선
 남선교회 : 김상운 여선교회 : 최진영
 예배부장 : 윤혜숙 봉사부장 : 서민정



올해의 성구 :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73:28)

주 일 예 배 순 서

【성령강림절 후 10주, 녹색】

주일오후 13:30 pm

8월의 찬양 : 나에 안에 거하라

예배로의 부름	반주자	
입 레 송	인도자	
기 원	왕상19:18	인도자
♠ 영 광 송	43. 즐겁게 안식할 날	다함께
♠ 성시교독	86. 요한계시록 14장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 찬 양	400.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다함께
대표기도	송영찬 집사	
응 답 송	시온성가대	
성경봉독	고후 7:8-13	김헌석 성도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같이

찬 양	시온성가대
말 씬	서인원 목사

“ 성령의 사람 (9) - 하나님께로 이끄는 아픔 ”

기 도	설교자	
찬 양	379.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다함께
봉 헌	다함께	
평화의 인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교회소식	다함께	
♠ 파송찬양	620. 여기에 모인 우리 (3절)	다함께
♠ 축 도	인도자	

♠ 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예배 후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 Today's text

고후 7:8-13

8-9 나는 내 편지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당시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지금은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알기에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지만, 잠시만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근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픔을 겪으면서도 상황을 호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근심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이 유익이었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10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은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런 아픔에는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후회만 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11-13 하지만 그 아픔이 여러분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생생하고, 더 사려 깊고, 더 섬세하고, 더 공손하고, 더 인간답고, 더 열정적이고,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기대한 사항입니다. 나의 일차적 관심은 해를 끼친 사람이나 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맺은 깊고 깊은 관계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고, 우리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아멘(메시지 신약성경)

Corinthians 7:8-13

8-9 I know I distressed you greatly with my letter. Although I felt awful at the time, I don't feel at all bad now that I see how it turned out. The letter upset you, but only for a while. Now I'm glad-not that you were upset, but that you were jarred into turning things around. You let the distress bring you to God, not drive you from him. The result was all gain, no loss.

10 Distress that drives us to God does that. It turns us around. It gets us back in the way of salvation. We never regret that kind of pain. But those who let distress drive them away from God are full of regrets, end up on a deathbed of regrets.

11-13 And now, isn't it wonderful all the ways in which this distress has goaded you closer to God? You're more alive, more concerned, more sensitive, more reverent, more human, more passionate, more responsible. Looked at from any angle, you've come out of this with purity of heart. And that is what I was hoping for in the first place when I wrote the letter. My primary concern was not for the one who did the wrong or even the one wronged, but for you-that you would realize and act upon the deep, deep ties between us before God. That's what happened- and we felt just great. Amen (Message)

예 배 위 원

	8/17	8/24	8/31	9/7	9/14	9/21	9/28
기도위원	송영찬	이귀영	윤혜숙	서민정	박영신	홍미향	강주현
성경봉독	김헌석	이지아	장진혁	고민철	김주환	김승환	한경덕
강단 꽃장식	9월 박현아			10월 이귀영			